

김 의 정

(金義貞 1495 연산군1 ~ 1547 명종2)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공직(公直), 호는 잠암(潛庵) 또는 유경당(幽敬堂)이며 서울 출신이다. 아버지는 공조참판 양진(楊震)이며, 어머니는 양천허씨(陽川許氏)로 서(瑞)의 딸이다. 재기가 뛰어나 8세에 글을 지었으며, 약관에 이미 문장이 성취되었다. 1516년(중종 11)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526년(중종 21) 별시(別試)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에 임명되고, 이어 수찬·정언·시강원사서에 이르렀다.

왕의 두터운 총애를 받자 김안로(金安老)에게 미움을 받아 파직되어 향리로 돌아갔다. 1537년(중종 32) 김안로가 처형되자 다시 공조좌랑에 임명되고, 이어 훈련원부정(訓練院副正)·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을 역임하였다. 뒤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고, 정간(靖簡)의 시호를 받았다가 문정(文靖)으로 고쳐졌다. 저서로는 『잠암일고(潛庵逸稿)』 5권이 있다.

祭申果川用甫文

器宇宏堅 才智卓犖 再佩銅虎 咸懋厥績 畿甸之縣 伊果爲劇 星使旁午 公私
 椎剝 時憂是虞 揀公經略 公承朝命 試手盤錯 夙夜匪懈 一心許國 煩拔滯興
 盡祛民瘼 十考之陟 比他加一 褒章將賜 以疾辭爵 勇於蹈刃 興起薄俗 頤養桑
 鄉 雍睦九族 豈意幽明 分此一夕 某非徒葭莩 見知自昔 及今窮寓 翳桑誰托
 我歌葛藟 公詠伐木 庶幾賴公 以保殘魄 天忽不遺 標焉有辟 歎興喪我 一痛腸
 裂 菲薄冀歆 非假于飾

과천현감 신용보(申用甫)를 추도하는 제문(祭文)

기량은 넓으며 굳었고, 재주·지혜는 탁월하였도다. 두 번 동호(銅虎)²⁷를 찾는데, 모두 그 공적이 성대하였도다. 경기(京畿)의 현(縣)으로, 저 과천(果川)에 더욱 심했도다. 성사(星使 : 사신)의 왕래가 많았고, 공사(公私)로 [재정이] 빈약하였도다. 당시 근심을 걱정하여, 공을 뽑아 다스리게 하였도다. 공은 조정의 명령을 받들고, 솜씨를 반근착절(盤根錯節)²⁸에 시험하였도다.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바치기를] 허여하였도다. 번잡함을 없애고 막힘을 일으켜, 백성의 병통을 다 제거하였도다. 10번 고과(考課)의 승진은 남에 비하여 하나가 더했도다. 표창장이 장차 내리려는데, 병으로 벼슬을 사직하였도다. 도인(蹈刃)²⁹에 용감하여 투박한 풍속을 흥기시켰도다. 고향에서 [부모를] 봉양하여, 9족³⁰과 화목하였도다. 어찌 저승·이승이 하루 저녁에 갈라질 줄 뜻하였습니까! 저는 한갓 먼 친척일 뿐만 아니라, 옛부터 지우(知遇)를 받았습시다. 지금에 이르러 궁박한 우거에서, 예상(翳桑)³¹을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까 내가 갈류(葛藟)³²를 노래하자, 공은 벌목(伐木)³³을 읊었도다. 바라건대 공에게 의지하여 남은 넋을 보존하려 했는데, 하늘이 홀연히 남겨주지 않으니, 평평 가

27) 동호(銅虎) : 동호부(銅虎符)를 말함. 구리를 써서 만든 호랑이 모양의 부절. 반을 나누어 한 쪽은 중앙에 두고 한쪽은 지방 수령이 지니는 것이다. 동호를 찾다는 것은 수령이 됨을 말한다.

28) 반근착절(盤根錯節) : 쉰 뿌리와 얽힌 마디, 일이 모여 꼬이고 얽힌 것을 비유한 말이다.

29) 도인(蹈刃) : 칼날을 밟는다는 뜻으로, 생명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 또 전쟁에 나아감을 말하기도 한다.

30) 9족 : 고조·증조·조·부·나·자·손·증손·현손(玄孫). 널리 친척을 말한다.

31) 예상(翳桑) : 뽕나무 그늘이라는 뜻인데, '翳桑餓人'을 줄여 쓴 것으로, '은인'을 말한다. 춘추(春秋) 진(晉) 나라 영첩(靈輒)이 뽕나무 그늘 밑에서 굶주리고 있었는데, 조돈(趙盾)이 그를 구제해주었다. 뒷날 조돈이 난리에 위급하게 되었을 때 영첩은 그를 도피시켰는데, 조돈이 구원해 준 이유를 묻자, 영첩은 과거의 뽕나무 그늘 밑에 있던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32) 갈류(葛藟) : 『시경(詩經)』 「왕풍(王風)」의 편(篇) 이름으로, 형제와 떨어져 있게 됨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갈류는 '취·머루'를 뜻하는데, 이것이 물가 또는 굽은 나무에 의지함을 노래하고 있다.

33) 벌목(伐木) : 『시경』 「소아(小雅)·녹명지십(鹿鳴之什)」의 편 이름이다. 도끼로 나무 치는 소리와 새 우는 소리가 어울림을 말하여, 친구 간에 서로 화답함을 노래하였다.

슴만 치도다. 탄식이 일어나 나를 잊고, 한결같은 애통으로 속이 찢어지도다. 변
변치 않은 제물을 흠향하기 바라오니, [예절로] 꾸미기에 거짓 하는 것이 아니
외다. [잠암선생일고(潛庵先生逸稿) 4권]

